

# 소련적 현상으로서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임차 농업 ‘고본지’: 1937-1986

양승조\*

- I. 들어가는 말
- II. 고본지의 의미와 발생 시기 논쟁
- III. 소련적 현상으로서의 고본지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고본지라는 고려인 특유의 농경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시간적·공간적 조건 속에서 배태된 역사적 산물이다. 고본지의 어원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에서 발생해서 소련 전역으로 확산된 독특한 농업 경영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본지의 특징과 실제 수행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소련이라는 시공간속에서 나타난 집단농장체제와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본지는 현재까지도 고려인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농경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과 함께 고려인 공동체 내에서 고본지 방식의 농업 경영은 그 효용성이 크게 작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본지 수행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본지는 소련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공간 속에서 배태된 역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핵심어 : 고려인-브리гада, 고본지, 소련 농업 경제, 콜호스, 슝호스

## I. 들어가는 말

고본지는 소련에 거주하던 한인 이주민과 그 후예인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일종의 이동 농업 경영 활동이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곳에서는 국가 성립 초기에 나타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신경제정책이 종료되는 1928년 이후로는 농업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집단경영이 빠르게 추진되고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에 소련에서 대부분의 농업 경영 단위들은 반관반민의 집단농장인 콜호스(Колхоз)와 국영농장인 슝호스(Совхоз)로 통합되었으며, 사적 소유지를 기반으로 하거나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농경활동은 형식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고려인들은 토지를 임차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잉여 작물을 판매하는, 당시 소련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농업경제 활동을 수행했는데, 이것이 고본지이다.

그런데 소련 시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한 고본지는 소련 해체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본지는 농업 경영을 위한 집단 구성, 집단적 토지 임차, 개별적 경작 활동, 잉여 이익의 개별적 수취 등과 같은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소련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현재 고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고본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발전한 것은 소련 시기였으나, 이 독특한 농경방식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주로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본지는 시대적 조건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역사적 현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자들이 소련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구별하지 않고 통칭하고 있는 고려인 영농 방식인 고본지는 사실 소련 시기와 그 이후 시기 사이에서 영농 조건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사회 체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 공동 경영을 추구했던 소련시대와 자본주의적 사적 경영이 일반화된 현 시대는 고본지라는 농업 경제 활동의 특성과 방식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따라서 고본지라는 이 독특한 농업 경영 방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 시기와 소련 해체 이후 시기를 구분한 후, 각각의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고본지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된 조건을 무시하거나, 시대적 조건 변화를 고본지의 특성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상황 변화로 인지 또는 수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고본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형성과 이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고본지에 대한 연구가 전문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소련 해체 이후의 일이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소련 한인들에게 있어, 특히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있어 고본지는 생존의 활로이자 부 창출의 수단이었다. 고려인에게 있어 고본지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듯 큼에도 불구하고 소련 해체 이전까지 고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본지가 소련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형태의 비합법적인 경제활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본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소련 해체 이후의 일이나, 이 독특한 농경 방식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소련 시기

에 나온 비 학술적인 저작이나 비전문 연구자의 저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련 시기 말에 일부 고려인 작가들은 자신의 문학작품에서 고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 김 아나톨리(Ким Анатолий)는 “양파밭(Луковое поле)”이라는 소설에서 소련 시대 고본지의 구조 및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sup>1)</sup>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신문인 『고려일보』 기자이자 작가인 김 브루트(Ким Брут)는 1991년에 출간된 고려인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고본지의 기원을 1937년 강제이주로 잡은 후, 이 고려인 농업 경작 방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가며 서술하고 있다.<sup>2)</sup>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인 리 계론은 고본지를 주제로 책을 저술했다.<sup>3)</sup> 제목과는 달리 실제 고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나, 고본지와 관련해서는 특기할만한 주장들을 여럿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고본지의 발생 시기를 스탈린 강제이주 이후로 상정하고 있고, 고본지는 농업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이 필요한 모든 부문에서 활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초기 고본자(고본지 종사자)들은 계약 없이 콜호즈 토지를 경작한 개인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련 시기부터 활동한 작가들이 남긴 기록들은 고본지의 개략적 상황과 그 실

1) 한 발레리, 「제1장 고본지 연구의 사료편찬과 방법론」, 권희영·한 발레리,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2-13쪽. 김 아나톨리의 원작 정보는, Ким Анатолий, “Луковое поле”, *Четыре исповеди*.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78, С. 281-439이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다른 조합의 단편선으로 묶여 재 간행되었다. 김 아나톨리의 소설은 1990년에 동명의 영화 (“Луковое поле”(1990))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 Ким Б. И., *Ветры наших судеб: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он, 1991, С. 76-83.

3) 한 발레리, 「제1장 고본지 연구의 사료편찬과 방법론」, 앞의 책, 15-21쪽. 리 계론의 원작 정보는, Ли Г.Н., *Гобонди.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2000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 이계룡, 『고본지: 고려인들의 토지 사랑에 대한 관찰자 수록』, 서울: 행복한집, 2003으로 번역·출간되었다.

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본지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관심이 시작된 것은 소련 해체를 전후한 시기의 일이다. 처음에 고본지에 대한 관심과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고려인 문화의 작은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었다.<sup>4)</sup>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백태현과 권희영·한 발레리의 저작들이 그것이다. 백태현은 고본지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한 이 주제에 대한 전문 연구자로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했다.<sup>5)</sup> 여기에서 그는 고본지의 역사적 성립과정과 시대적 조건에 따른 시기구분, 내부 구조와 구성 요소, 사례조사를 통한 고본지의 실제 진행 모습 등과 같이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에 나온 권희영·한 발레리의 저작<sup>6)</sup>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이다. 이 책에서 한 발레리는 고본지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고본지 연구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짚어주고 있고, 권희영은 고본지의 특징과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현지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이러한 연구들이 나온 후로는 고본지에 대한 주

4) 예를 들면, 1987년에 나온 고송무의 저작(Kho song Mo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Helsinki: Finnish Oriental Society, 1987)과 1995년에 나온 김 게르만·명 드리 트리의 저작(Ким Г.Н., Мен Д.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1995.)에서 고본지는 정확한 명칭에 대한 언급 없이 간략히 언급되거나 한인 농업의 한 부분으로서 간단하게 기술되었을 뿐이다(한 발레리, 「제1장 고본지 연구의 사료편찬과 방법론」, 앞의 책, 25-26쪽).

5) 백태현·이 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본지」, 『비교문화연구』 6집 1호, 2000, 63-131쪽; Пэк Тхе Хён, ““Кобонджиль” корейце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Бишкек, 2002.

6) 권희영·한 발레리,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목할 만한 연구 성과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2005년에 나온 리계론의 글은 고본지를 한국 학계에 소개하는 수준의 개괄적인 성격의 글이고,<sup>7)</sup> 2007년에 나온 이봄철의 기술은 현장 활동가의 보고서적 성격의 기고문이며,<sup>8)</sup> 2008년에 나온 이채문의 논문도 고려인 자영업 전체에 대한 연구로 고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sup>9)</sup> 고려인 역사 연구 분야에 있어 주요 학자들 중 한 명인 김 게르만도 2013년에 나온 자신의 책에서 고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특별한 쟁점 제시나 논지 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기존 연구에 기반을 둔 고본지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글이다.<sup>10)</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고본지는 여전히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제이며, 그나마 진행되던 연구 흐름조차 미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주의 소련 체제 내에서 나타난 시장경제적 농업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본지의 역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고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보다 깊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고려인 고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쟁점 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얼마간 가라앉아 있는 고본지 연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 리계론, 「‘고본지’ 조직과 그의 제자들」, 『민족문화논총』 32집, 2005, 387-395쪽.

8) 이봄철, 「고려인 농업형태인 고본질의 변화와 시설농업의 전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7.10, 45-64쪽.

9) 이채문, 「재외한인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46집, 2008, 5-35쪽.

10) 김 게르만, 『나는 고려사람이다』, 서울: 국학자료원, 2013, 225-228쪽.

## II. 고본지의 의미와 발생 시기 논쟁

### 1. ‘고본지’ 개념의 정의

고본지의 발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백태현은 ‘고본질(кобонджиль)’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sup>11)</sup> 권희영·한 발레리는 ‘고본지(gobondi)’로 약간 다른 표기를 제시하고 있다.<sup>12)</sup> 특히, 권희영·한 발레리는 백태현이 사용하는 ‘고본질’이 적절한 표기가 아니라고 말하며, ‘고본지’라는 표기가 현지인, 즉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 게르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고본지’에 대한 표기는 ‘고본지(кобончжи)’, ‘고본질(кобончжиль)’, ‘고본지리(кобонджери)’, ‘고본다이(кобондий)’, ‘고본디(гобонди)’ 등으로 다양하다.<sup>13)</sup> 즉,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 내에서 ‘고본지’라는 용어에 대한 표기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다른 많은 고려말들과 마찬가지로 이 용어 역시 문어로 표기되지 않고 구술로 전달되다 러시아 철자로 표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14)</sup> 그룹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공동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사용되는 것이 ‘고본지’라는 표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며, 따라서 김 게르만과

11)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63-131쪽.

12) 권희영·한 발레리, 앞의 책, 6쪽.

13) 김 게르만, 앞의 책, 225쪽 ; Ким Герман, “Происх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в Казахстане”, 2009. ([http://world.lib.ru/k/kim\\_o\\_i/as-1.shtml](http://world.lib.ru/k/kim_o_i/as-1.shtml)). (검색일: 2020.10.27.). 후자가 전자의 러시아어 본으로 여겨진다.

14)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에서는 조선어 교육이 국가에 의해 폐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직, 「‘다(多)공화국 인민’에서 ‘다(多)국가 시민’으로 -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의 해체와 고려인 -」, 『석당논총』 59집, 2014, 76-78쪽 참조할 것). 그 결과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새로운 모국어로 수용하게 되었다.

권희영·한 발레리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용어는 한글로는 ‘고본지’, 러시아어로는 ‘кобонджи(кобончжи)’<sup>15)</sup>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김 게르만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고본지 하는 사람’을 뜻하는 ‘고본자(кобончжа)’, ‘고본지쉬닉(кобондишник)’, ‘고본다 샤키(гобондя сякки)’, ‘고본다 아드리(гобондя адыри)’ 등은 ‘고본자(кобончжа)’와 그 복수형인 ‘고본자들(кобончжадыль)’로 통일해서 표기할 것이다.<sup>16)</sup>

그렇다면 ‘고본지’란 무엇일까? 연구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고본지’라는 용어가 ‘고본’과 ‘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 중 ‘지’는 ‘행위’를 뜻하는 ‘-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행위의 내용을 뜻하는 ‘고본’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는 없다는데 있다. 즉, 학자들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추정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고 있다.

김 게르만은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제보자의 언명에 근거해서 ‘고본’은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 분배”를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7)</sup> 백태현·이 애리아는 ‘고본’을 “고본질에 참여하는 한 개별 가호가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8)</sup> 실제로 고본질에 참여하는 사람인 고본자는 임대한 토지를 일정 규모로 분할한 후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 지분을 받았는데, 이때 분배

15) 권희영·한 발레리는 고본지의 러시아어 표기를 ‘gobondi’, 즉 ‘гобонди’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어 표기상으로는 ‘고본디’로 읽히기에 김 게르만이 제안하는 것처럼 ‘кобонджи(кобончжи)’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6) 김 게르만, 앞의 책, 225쪽; Ким Герман, op. cit. ([http://world.lib.ru/k/kim\\_o\\_i/as-1.shtml](http://world.lib.ru/k/kim_o_i/as-1.shtml)). (검색일: 2020.10.27.)

17) 김 게르만, 앞의 책, 225쪽.

18)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71쪽.



된 토지 지분을 고려인들은 ‘고본’이라고 불렀다. 백태현·이 애리아가 말하는 토지 지분이라는 의미로서의 ‘고본’은 이것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김 게르만의 정의와는 얼마간 차이가 난다. 이와는 달리 권희영·한 발레리는 ‘고본’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면서도, 리 계론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 말의 실제 용례는 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본’은 “입차한 땅의 자기 몫 즉 자기가 경작하는 지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9)</sup> 이봄철도 사전적 설명에 기반을 두어 이 용어를 “각자가 밭천을 내어 공동으로 일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 이것과 “고려인들의 특징적인 토지 입차 경작의 형태”인 “고본질”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20)</sup>

그런데 과연 ‘고본’의 사전적 정의와 고려인 고본지의 ‘고본’은 내용상 크게 상이한 것인가? 리 계론은 고본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본지’[라]는 농업 조직은 최소의 자본 입회금을 기초로 하여 공동으로 일하는 노동조직이고, 또 그 노동조직과 각 관계자는 물질과 노동기여에 따라 받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공동이익 할당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고본지는 일군의 농업 노동 공동체가 소속 구성원들이 출연해서 모은 자본금을 기반으로 특정한 일을 수행한 후 그 결과 얻게 된 이익을 기여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행위’이자 이를 수행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본’은 사전적 의미와 상당한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본지의 어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본(股本)’은, 국립국어원의 웹기반 전자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따르면, “예전에,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로 사업을 할 때에, 이들 투자자가 각

19) 권희영·한 발레리, 앞의 책, 7-8쪽.

20) 이봄철, 앞의 논문, 49쪽.

21) 리계론, 「‘고본지’ 조직과 그의 제자들」, 『민족문화논총』 32집, 2005, 387쪽.

각 내던 자본금. 또는 그 투자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sup>22)</sup>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본’에 기반을 둔 행위(‘-질’)는 (‘고본’, 즉 자본금을 내고) 동일한 목적의식 아래 공동으로 일을 수행하는 하나의 조직과 이에 속한 이들이 노동과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고본’, 즉 투자 사실 증명 문서에 기반을 두어) 기여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받는 행위를 모두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이렇게 이해하면 고려인들이 고본지에 사용하는 임대지의 분할분을 ‘고본’이라고 부른 이유 또한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고본지 참여자들은 임차한 토지 전체를 참여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 당 평균 면적을 산출했는데, 고려인들은 이 (평균) 분할지를 ‘고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단위로서 고본은 그 크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본지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임차한 총 토지 면적과 참여 가구 수에 따라 변동했다. 이렇게 계산된 분할지로서의 고본은 능력에 따라 고본지에 참여한 사람이나 가구에 분배되었다. 즉, 고본지 참여자/참여가구는 (노동력을 포함하는) 물적 기여(능력)와 자본 투자에 따라 ‘고본’ 단위의 토지를 서로 다른 수량(크기)으로 분배받았던 것이다.<sup>24)</sup> 이렇듯 고본지에서 분배되는 경작지 면적과 참여 가구의 기여도 사이에서 보이는

22) 「고본(股本)」,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9440&viewType=confirm](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9440&viewType=confirm)) (검색일: 2020.10.27.)

23) 다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말샘』에 나온 ‘고본지’에 대한 정의, 즉 “소련 시기 및 그 이후에 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행하였던 영농 방식. 농번기에 틈을 이루어 거주지를 떠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재배한 농산물을 팔아 임차비를 납부한 뒤,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본래의 거주지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고본지(股本지)」,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query&query=%EA%B3%A0%EB%B3%B8%EC%A7%80](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query&query=%EA%B3%A0%EB%B3%B8%EC%A7%80)) (검색일: 2020.10.27.))는 설명은 고본지가 이를 수행하는 ‘노동조직’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절만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4)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71, 107-108쪽; 리계륜, 「‘고본지’ 조직과 그의 제자들」, 『민족문화논총』 32집, 2005, 387쪽.

직접적인 연관관계 때문에 고려인들은 본래 공동사업에 참여한 각 참여자가 투자금으로 제공한 자금을 의미하는 용어인 ‘고본’을 이 임대지 분할분의 단위에도 적용해서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고본지의 어원으로 추정되는 ‘고본(股本)’의 사전적 정의는 소련 시기 고려인의 독특한 농경방식인 고본지의 실제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고본’이라는 명칭이 고본지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가리키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던 이유 또한 설명할 수 있다.

## 2. 고본지의 구조

조직으로서의 고본지는 소련 집단농장의 기본 노동 단위였던 브리гада(бригад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즉, 고본지 조직은 이 집단을 이끄는 사람인 브리гада디르(бригадир)와 나머지 조직원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집단농장의 브리гада와는 달리 고본지-브리гада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조직이었기에, 그 구성 방식에 집단농장과는 달리 혈연성과 지연성이 강하게 작용했다. 즉, 고본지-브리гада는 이를 이끄는 브리гада디르를 중심으로 그와 혈연적으로 연계된 친족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여기에 이들 참여자들과 관계가 있는 지인들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고본지-브리гада는 브리гада디르를 중심으로 혈연·지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 결속된 고려인 혈연·지연 소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고본지-브리гада의 조직 규모는 일정하지 않았다. 주로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고본지 연구를 수행한 백태현은 고본지-브리гада의 규모를 6-50가구 사이로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이와는 달리

주로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권희영은 크게 보면 4-35명 사이이나 보통은 10-15명 정도라고 추산<sup>26)</sup>함으로써 그 규모를 보다 작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인 리계론은 고본지 공동체가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브리가디르의 개인적 역량과 임차 토지의 규모에 따라 브리가다의 크기가 변동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본지-브리가다에 정해진 규모나 참여자/가구의 수가 존재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본지-브리가다의 구성원은 ‘고본자’라고 부른다. 원래 소련 집단농장에서 브리가다의 일반 조직원을 가리키는 용어는 브리가디르니크(бригадник)이다. 고본지-브리가다의 구성원도 형식적으로는 토지를 임대한 집단농장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경작활동을 수행했기에, 공식적인 문서 등에는 브리가디르니크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고본지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존재했는데, 그것은 ‘고본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고본자’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본자’가 고본지-브리가다를 이끄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인 ‘브리가디르’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고본지의 일반 구성원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고본자’라는 말은 고본지를 하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따라서 브리가디르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는 고본자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즉, 브리가디르는 ‘고본자들을 이끄는 고

25)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79쪽. 다만, 고본지-브리가다 구성단위로서의 가구는 개별 가구의 전체 구성원들 중 일부가 참여하는 불완전한 형태의 가구였으며, 이에 따라 가구원 수 역시 일반적인 가구의 구성원 수에 비해 적었다(위의 논문, 80쪽).

26) 권희영, 「제3장 고본자와 고본지의 조직」, 권희영·한 발레리,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00쪽.

27) 리계론, 「‘고본지’ 조직과 그의 제자들」, 『민족문화논총』 32집, 2005, 390쪽.

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브리가디르와 일반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권희영은 고본지 조직이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경제 활동 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브리가디르를 포함한 고본지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상하”, 즉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고본지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 브리가디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양자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권희영(!)의 분류에 따라 브리가디르의 역할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브리가디르는 경작에 적합한 토지를 물색하는 농민으로서의 자질과 필요한 땅을 관리 주체인 집단농장 지도부와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실하게 협의하여 적절한 조건 하에 계약을 맺어 임차하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둘째, 브리가디르는 그 출처와 상관없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농경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셋째, 브리가디르는 고본지-브리가다의 대표자로서 집단농장으로부터 물이나 농기계 등과 같이 농사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때에 지원받기 위해 집단농장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필요하면 뇌물을 사용해서라도 필요 요소들을 확보해서 고본지-브리가다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했다. 넷째, 브리가디르는 구성원들이 거주할 숙소 건축에서부터 농작물의 선정, 경작 과정에서의 기술적 지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등 고본지 과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농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고본지-브리가다의 다른 구성원들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만 했다.<sup>29)</sup>

28) 권희영, 「제3장 고본자와 고본지의 조직」, 앞의 책, 94-95쪽.

29) 위의 책, 96-99쪽;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82-83쪽; 리계론, 「‘고본지’ 조직과 그의 제자들」, 『민족문화논총』 32집, 2005, 390-391쪽.

이러한 브리가디르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고본지-브리가다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 실제로 고본지-브리가다를 이끄는 대표자로서의 브리가디르는 상당한 정도의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브리가디르는 고본지-브리가다의 구성원들 중 일부로부터 일정 액수의 입회금을 수납할 수 있었는데, 이 입회금 중 일부는 고본지-브리가다 전체 활동을 위한 경비로, 그리고 일부는 브리가디르 자신을 위한 몫으로 사용했다. 둘째, 브리가디르는 임차한 토지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브리가디르 자신이 농경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집단농장과 계약한 토지임차료를 가구별로 분담할 때 조금 더 많은 액수를 분담시킴으로써 그 차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 넷째, 때에 따라서는 고본지-브리가다의 다른 구성원들이 브리가디르에게 배당된 토지를 대신 경작해 주기도 했다. 다섯째, 브리가디르는 회의 소집이나 규율 제정을 통해 고려인-브리가다의 운영을 주관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권이 획일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적용되었으며, 또한 상황에 따라 이 이외의 다른 특권들이 새로이 부여되기도 했다는 것이다.<sup>30)</sup>

이상에서 살펴본 브리가디르의 책무와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일반 구성원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고본지들은 고본지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와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본지-브리가다를 대표해서 전적으로 운용하고 행사한 것이 바로 브리가디르였던 것이다. 즉, 고본지-브리가다 내에서 브리가디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비중은 구성원 각자의 참여와 브리가다 전체의 농경

30) 권희영, 「제3장 고본자와 고본지의 조직」, 앞의 책, 99쪽; 백태현·이 에리아, 앞의 논문, 82, 83쪽.

활동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컸으며, 이에 따라 브리가디르는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특권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태현은 고본지-브리가다를 단순한 계약관계 이상의 인간적 친연성 위에 수립된 조직으로 상정하면서, 이러한 조직의 “가부장적인 존재”로서의 브리가디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본질 브리가다에는 그 책임자 곧 고본질의 실질적 운영자인 브리가딜[브리가디르 - 인용자]이 존재한다. 그는 고본질의 전과정, 곧 현지 토지임차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영농의 전과정을 총지휘한다. 물론 브리가딜[브리가디르 - 인용자]의 역할도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그의 경영능력 여부가 그 해 고본질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역할은 큰 편이다. [강조 - 인용자]”<sup>31)</sup>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본지-브리가다에서 브리가디르는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 중 한명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고본지-브리가다의 구성에서부터 농작물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관할하는 지도자이자 관리자였으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었다.

브리가디르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본지 조직의 유지 기간은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본지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은 자발성에 기반을 두어 결성된 일정 규모의 농경 집단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에 형성된 집단농장에서 토지를 임차해서 경작 행위를 하고, 그 결과 획득한 수확물 중 계약에 따라 집단농장 측에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

31)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81쪽.

분을 소득으로서 판매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고분지는 영농기에만 수행되는 경제활동이고, 이러한 이유로 고분지 조직은 경작 활동이 진행되는 시기인 3월에서 10월까지 유지되는 한시적 단체이다. 그리고 농한기에 해당하는 11월에서 다음 해 2월에 걸친 4개월 동안 고분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음 해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기초로 다시 고분지 조직을 결성하여 8개월 동안 농경에 종사했다. 그런데 한번 형성된 고분지-브리гада의 지속성은 브리гада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브리гада가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농업경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그 조직은 장기간 유지되었던 반면, 내적으로는 독선적이고 외부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무능한 면을 보인다면 얼마 안가 해체되었다.

고분지 조직에서 임대하는 경작지 규모는 일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분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의 양도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구당 경작 면적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권희영에 따르면, 고분지에 참여한 고려인들은 가구당 평균 3헥타르 정도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경작 능력에 따라 1.5-5헥타르 사이에서 가구당 경작 면적이 서로 다르게 결정되었다.<sup>32)</sup>

### Ⅲ. 소련적 현상으로서의 고분지

그렇다면 우리는 고분지를 무엇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까? 이것은 소련 시기에 나타난 역사적 현상인가, 아니면 고려인이 프리모리에 지역에 이

32) 권희영, 「제3장 고분자와 고분지의 조직」, 앞의 책, 100쪽.



주한 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농경방식의 일종인가? 우리는 고본지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고본지 형성에 있어 소련이라는 조건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고본지가 농업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인가 하는 점이다. 리 계론은 고본지의 특징 중 하나인 계절노동에 주목하며, 이를 기반으로 광산업, 건설업, 건축업 등에서 보이는 계절노동들도 모두 고본지라고 주장하고 있다.<sup>33)</sup> 그런데 이러한 리 계론의 해석은 연구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절노동이 고본지의 여러 특징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발레리는 고본지가 농업을 비롯한 노동이 투여되는 모든 부문에서 존재했다는 리 계론의 주장을 “계절적, 집단적 (작업반, 노동조합) 노동 형태를 고본지와 혼동하는 오류”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한 발레리에 따르면 고본지는 다섯 가지 점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 보이는 계절노동과는 구별되는 농업에 특화된 방식으로서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산업 분야들에서 보이는 계절노동과 달리 고본지는 매년 봄에서 가을에 이르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수행된다는 점, 고본지 작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진다는 점, 생산품 중 일정 부분을 계약에 따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다는 점, 작업에 따른 보수가 유동적이며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이 합법적이지 않은 조건 속에서 수행된다는 점이 그것이다.<sup>34)</sup> 고본지 연구 분야의 주요 연구자인 백태현도 고본지의 특징을 ‘이동 영농’, ‘소공동체 단위 운용’, ‘이동 임대농업’, ‘고려인 주도의 영농’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

33) 한 발레리, 「제1장 고본지 연구의 사료편찬과 방법론」, 앞의 책, 15-21쪽.

34) 한 발레리, 「제2장 고본지의 전사(前史)와 발생」, 권희영·한 발레리,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39-41쪽.

하면서, 일부 고려인이 고본지를 다양한 형태의 힘든 돈벌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5)</sup>

다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고본지의 발생과 종료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고본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고려인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주장도 나뉘고 있다. 고본지 연구는 특정한 기록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에 종사한/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로부터 인터뷰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구술이 주요한 근거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고본지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 구술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그 시점이 매우 다양하다. 권희영의 분류에 따르면, 고본지 시점에 대한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초기 이주시기에 나타난 소작제를 고본지의 시점으로 보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소련에서 집단농장제가 도입된 이후로 보는 견해이고, 세 번째는 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 시작되었다는 견해이고, 네 번째는 스탈린이 사망하는 1953년 전후에 시작되었다는 견해이며, 다섯 번째는 흐루쇼프가 권력을 장악하는 1956년 이후의 일이라는 견해이다.<sup>36)</sup> 이렇듯 다양한 시기가 제기되고 있기에 연구자들은 시대적 조건과 고본지 작업의 특징을 고려하며 고본지 시작 시점을 추정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제정 시기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활용하고 있었던 소작제, 즉 임차농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요 연구자들이 고본지와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권희영은 소작제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특수한 현상으로서의 고본지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7)</sup> 한 발레리는 제

35) 백태현·이 에리아, 앞의 논문, 67-72쪽.

36) 권희영, 「제3장 고본자와 고본지의 조직」, 앞의 책, 91쪽.

정 러시아 시기 고려인 임차농업 상황을 기술한 후, 이러한 임차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개인적·가족적 경영, 거주지 주변 토지 임차, 재배한 농작물의 차이,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차이)을 열거하며, 고본지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8)</sup>

또한 소련 초기인 1920년대와 1930년대도 아직 고본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한 발레리에 따르면, 소련 초기인 20년대에 존재했던 한인협동조합은 합법성, 생산도구의 소유, 동등한 소득 분배, 고본지-브리гада를 이끄는 브리гада르에 준하는 지도자의 부재라는 점에서 고본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농업경영방식으로 보아야 하고, 1930년대에는 스탈린 정권의 농업 집단화와 1937년의 강제이주로 고려인들이 자신들만의 농업 경영을 운용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9)</sup> 백태현도 고본지는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이후 발생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sup>40)</sup>

이렇듯 고본지를 연구하는 주요 학자들은 고본지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안착한 고려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독특한 농업 생산 방식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1937년 이후 언제 고본지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정확한 시점을 특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백태현은 강제이주 초기 고려인들은 새로이 정착하게 된 땅에 적응하는데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고본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보다 더 이후인 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

37) 위의 책, 91쪽.

38) 한 발레리, 「제2장 고본지의 전사(前史)와 발생」, 앞의 책, 41-52쪽.

39) 위의 책, 53-72쪽.

40)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86쪽.

르면, 전쟁 기간 중에 나타난 콜호스들에 대한 과도한 공출로 인해 고려인 콜호스 구성원들 중 일부가 소규모로 토지를 임차해서 경작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초기 고본지이다.<sup>41)</sup> 한 발레리는 기본적으로 백태현의 시기 구분에 동의하면서, 약간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후 정규군 복무가 금지되었던 고려인 성인 남성들은 후방에서 광산 채굴, 삼림 벌채, 공장 노동 등에 종사하는 노동군으로 징집되었는데, 이때 일부 고려인들은 징집을 피해 농촌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인들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주변 지역의 집단농장 지도부와 비합법적인 토지 임차 계약을 맺고 농경에 종사하게 되는데, 한 발레리는 이것이 최초의 고본지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백태현과 한 발레리의 주장에 따르면 고본지는 1940년대 초에 나타났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와는 달리 권희영은 고본지의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흐루쇼프 집권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본지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고본지-브리гада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위에서 고본지가 고려인 공동체의 독특한 농경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소련에서 억압적 체제가 완화되고 고려인들이 이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 이후인 1953년부터 보아야 하고, 농경방식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흐루쇼프 집권 이후인 1956년부터 볼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sup>43)</sup>

고려인이 고본지를 행했던 근본 목적은 경제력 확보였다. 사회주의 국

41) 위의 논문, 86-87쪽.

42) 한 발레리, 「제2장 고본지의 전사(前史)와 발생」, 앞의 책, 41-77쪽.

43) 권희영, 「제3장 고본자와 고본지의 조직」, 앞의 책, 92-93쪽.

가였던 소련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윤택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소련에서도 여전히 돈이 필요했다. 학비, 결혼비용, 분가비용 등으로 사용할 재원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주택을 소유 및 교체하기 위한 큰 자금도 종종 요구되었다. 고려인들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고본지를 활용했다. 고본지로 성공적인 농경을 3년 정도 운영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본지는 강제이주 이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추락한 고려인들이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 필요로 했던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sup>44)</sup>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 고본지의 효용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고본지 발생 시점에서 보이는 얼마간의 이견과는 달리 고본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자들이 모두 현재도 고본지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5)</sup> 다만 이러한 고본지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권희영은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 해체 이후 시장경제가 진전되면서 고본지는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고본지에 종사하던 고려인들이 점차 시장경제 체제 내의 다른 경제 부문들에서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노동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6)</sup> 이채문은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고려인들이 고본지에서 상업을 비롯한 자영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지

44)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91-93쪽.

45) 예를 들면, 백태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본지의 시원은 상당히 오래 되었고, 현재에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위의 논문, 66쪽).

46) 권희영, 「제5장 시장경제의 발달과 고본지의 전망」, 권희영·한 발레리,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32-142쪽.

역에서 고본지는 고려인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일정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는 상업을 비롯한 다른 자영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현상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본지가 소련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배경 속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고본지의 발생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고본지 활동의 단위인 고려인-브리гада와 콜호스 브리гада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고본지 발생은 소련 사회의 특수한 경제 구조, 특히 집단농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발레리는 소련 시기에 고본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스탈린 정권의 콜호스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형 콜호스 탄생이 한인을 농촌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고, 둘째는 소련 당국의 계획적 농업 경작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목화가 주로 재배됨으로써 다른 작물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셋째는 집단농장 체제에는 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 향상을 위한 동기 유발 요인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었다는 점이고, 넷째는 생산 주체인 농민이 아니라 행정 기구인 정부가 계획경제라는 명분 아래 농업 경영을 주도함으로써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고, 다섯째는 고려인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도시 거주 고려인이 농촌에서 계절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점이고, 여섯째는 고려인들이 임차 형태의 농업경영에 있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며, 일곱째는 러시아 지역으로 유입된 고려인들은 19세기 이래로 자의나 타의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이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거리 이동 농업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는 점이다.<sup>48)</sup> 이것들 중에서 마지막 두 가

47) 이채문, 앞의 논문, 14-18쪽.

48) 한 발레리, 「제2장 고본지의 전사(前史)와 발생」, 앞의 책, 80-85쪽.

지는 고려인 집단이 가지는 역사적 특징이라면, 나머지 다섯 가지는 소련 국가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조건들이다. 즉, 사회주의적이고 고려인의 입장에서는 억압적이었던 소련 체제가 시장 지향적이면서 비합법적이었던 고본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토양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본지는 소련 농업경제의 핵심 단위인 집단농장과 일종의 공생관계 하에 있었다. 고본지는 고려인에게 뿐만 아니라 토지를 임대하는 집단농장에게도 주요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각 집단농장은 국가 계획에 따라 일정한 양의 생산 목표를 달성할 의무가 있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고본지-브리가다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이 조직은 집단농장에서 경작하지 않는 땅을 개간해서 적지 않은 양의 생산물을 임차료로 지불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인-브리가다에서 재배한 주요 작물은 물론이고 고려인들이 텃밭에서 가꾼 채소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이점으로 들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고려인은 채소 농사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고본지-브리가다의 존재는 해당 지역 거주민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고려인-브리가다는 집단농장의 지도부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이득을 제공했다. 고려인-브리가다는 고본지 과정에서 토지 임차, 농기계 대여, 용수 공급, 집단농장 등록 등 많은 문제들을 집단농장 지도부와 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만 했다. 때로 이러한 문제들은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도 했으나, 불법적인 계약관계 속에서 고려인-브리가다는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농장 지도부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sup>49)</sup>

49) 백태현·이 애리아, 앞의 논문, 76-77쪽; 권희영, 「제3장 고본자와 고본지의 조직」, 앞의 책, 95-96쪽; 한 발레리, 「제2장 고본지의 전사(前史)와 발생」, 앞의 책, 86-87쪽.

집단농장이 이러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본지를 수행하는 고려인 소공동체와의 불법적인 임대차 관계를 합법적인 관계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다.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단농장 지도부는 고려인 소공동체를 집단농장, 특히 콜호스의 기본 노동 단위인 브리가다 체계 내에 귀속시켰다. 원래 브리가다는 콜호스의 노동 작업 단위로, 해당 콜호스의 정식 거주민으로만 구성되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32년 2월 4일자 규약에서는 콜호스 브리가다 구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브리가다의 존속 기간은 브리가다가 수행할 농경 활동이 수행되는 한 농경 주기 동안이었다. 둘째, 집단농장은 브리가다가 수행하는 농경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브리가다는 브리가다르의 엄격한 지도와 통제 하에 주어진 농경 활동을 수행한다.<sup>50)</sup> 고본지를 수행하는 고려인 소공동체가 브리가다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그 대표자를 브리가다르라고 칭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본지 조직이 일정한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을 영농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설명하는데 치중하면서,<sup>51)</sup> 이것이 집단농장의 한 체계로서의 브리가다 단위에서 연월한 것이라는 점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50) Аксенов Г. А., Григорьев В. К., Пятницкий П. П., “§ 2. Бригада - основная и главная форма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в колхозах”, *Колхозное право*. Москва; Гос. изд-во юри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0. (<https://istmat.info/node/23764>) (검색일: 2020.09.24.)

51) 백태현 · 이 애리아, 앞의 논문, 68쪽.



#### IV. 나오는 말

고본지의 정확한 명칭과 어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고려인들이 이것을 '고본지', '고본질', '고본지리' 등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본지(또는 고본질)로 부르는 것으로 이견을 좁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본지는 소련에 거주하는 옛 조선인-이주민의 후예인 고려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독특한 농업 경영 방식이다. 고본지는 소련 집단농장의 기본 노동 단위인 브리가다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그 구성은 브리가디르라고 부르는 중심인물과 혈연적·지역적으로 연계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집단농장으로부터 임대차라는 방식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생산된 농산물 중 일부는 입차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적 소득으로 확보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고본지의 기본적인 농경 방식이자 이윤 수취 구조였는데, 당연하게도 이러한 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는 불법 행위였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농장과 고본지를 수행하는 고려인-브리가다 사이에서는 농경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야만 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고려인-브리가다 측이 약자 입장이었기에,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했다. 브리가디르는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을 주도하는 중심인물이었기에, 이에 따라 고려인-브리가다 내에서 다양한 특권들을 향유했다.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고본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계절 이동 임대 영농으로, 노동과 자본의 공동 투자와 그 정도에 따른 이윤 분배를 전제하

는 조직 또는/그리고 그 행위’.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농업 경영 방식으로서의 고본지는 소련이라는 시간적·공간적 조건 속에서 배태된 역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본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에서 발생해서 소련 전역으로 퍼진 독특한 농업 경영 방식으로서, 소련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나타난 집단농장체제와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유지된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고본지가 현재까지도 고려인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과 함께 고려인 공동체 내에서 고본지 방식의 농업 경영은 그 효용성이 매우 작아졌으며, 이에 따라 고본지 수행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본지는 소련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공간 속에서 배태된 역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참고문헌

- 「고본(股本)」,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9440&viewType=confirm](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9440&viewType=confirm)) (검색일: 2020.10.27.)
- 「고본지(股本지)」,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query&query=%EA%B3%A0%EB%B3%B8%EC%A7%80](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query&query=%EA%B3%A0%EB%B3%B8%EC%A7%80)) (검색일: 2020.10.27.)
- 권희영 · 한 발레리,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김 게르만, 『나는 고려사람이다』, 서울: 국학자료원, 2013.
- 리계론, 「‘고본지’ 조직과 그의 제자들」, 『민족문화논총』 32집, 2005, 387-395쪽.
- 백태현 · 이 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본질」, 『비교문화연구』 6집 1호, 2000, 63-131쪽.
- 신명직, 「‘다(多)공화국 인민’에서 ‘다(多)국가 시민’으로 -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의 해체와 고려인 -」, 『석당논총』 59집, 2014, 65-109쪽.
- 이봄철, 「고려인 농업형태인 고본질의 변화와 시설농업의 전망」, 『전남대학교 세제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7.10, 45-64쪽.
- 이채문, 「재외한인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46집, 2008, 5-35쪽.
- Аксененок Г. А., Григорьев В. К., Пятницкий П. П., *Колхозное право*. Москва; Гос. изд-во юри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0. (<https://istmat.info/node/23708>) (검색일: 2020.09.24.)
- 김 Б. И., *Ветры наших судеб: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он, 1991.
- 김 Герман, “Происх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в Казахстане”, 2009. ([http://world.lib.ru/k/kim\\_o\\_i/as-1.shtml](http://world.lib.ru/k/kim_o_i/as-1.shtml)) (검색일: 2020.10.23) (김 게르만, 『나는 고려사람이다』, 서울: 국학자료원, 2013 중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

착 유래”(194-233쪽)의 러시아어 원본으로 보인다.)

Пэк Тхе Хён, ““Кобонджиль” корейце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Бишкек, 2002.

〈Abstract〉

Lease Agriculture by Koryo-saram(Koryo-in)  
in Central Asia, ‘Gobonji’, as a Soviet  
Phenomenon: 1937–1986

Yang, Seung Jo

Gobonji, a unique agricultural method of Goryeoin(the ethnic Koreans in Russia and Central Asia), is basically a historical result embedded in the temporal and spatial conditions of the Soviet Union. Etymologically, we can see that Kobonji is a unique agricultural management method that originated in the Goryeoin community in Central Asia and spread throughout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Kobonji and the actual method of execution, we could confirm that this occurred and maintained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llective farming system such as Kolkhoz and Sovkhoz, which appeared in the space and time of the Soviet Union. And Gobonji, which has these characteristics, is also a farming method that is maintained among Goryeo people to this day. However, with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spread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the effectiveness of Gobonji as an agricultural management method within the Goryeoin community is greatly decreasing, and the scale of cultivation of the Gobonji method is decreasing accordingly. From this point of view, in

conclusion, it seems appropriate to view Kobonji as a historical phenomenon embedded in the special time and space of the Soviet Union.

Key Words : Koryo-saram(Koryo-in), Kobondzhi, Agriculture in the Soviet Union, Kolkhoz, Sovkhoz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6일에 접수되어 11월 18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4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